

2024. 5. 21.(화) 조간용

이 보도자료는 2024년 5월 20일 오전 11:15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담당 부서: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자원순환과장

정미선

02-2133-3670

생활폐기물감량팀장

장지훈

02-2133-3695

사진 없음 사진 있음 쪽수: 5쪽

관련 누리집
(메뉴)

-

9월부터 1천명 이상 행사 일회용품 사용 전면금지 · 폐기물 감량계획 의무화

- 서울시, '22년 '제로웨이스트 서울' 선언 후 2년간 일회용플라스틱 2185만개(378톤) 감량
- 장례식장·스포츠경기장 등 다회용기 우선 도입, 하반기 대형 민간장례식장까지 확대
- 하반기부터 개인컵 사용·서울페이로 결제 시 300원 포인트 적립, 현금처럼 사용가능
- 소상공인 종이 등 대체빨대 구매 시 점포당 최대 10만개 1개당 3원 지원... 8000만개 규모

- 올해 9월부터 1천명 이상 모이는 서울시 주최 행사·축제장에서는 일회용품을 사용할 수 없고, '폐기물 감량 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한다. 이와 함께 현재 서울의료원·시립동부병원(상반기)에 도입한 장례식장 다회용기 사용을 공공은 물론 대형 민간장례식장까지 대대적으로 확대한다.
- 서울시가 '플라스틱 프리 서울'을 목표로 올해도 일회용품 줄이기에 적극적으로 나선다고 밝혔다. 시는 22년 '제로웨이스트 서울' 선언 후 지난 2년 동안 약 378톤 규모의 일회용 플라스틱 2,185만개를 줄여 약 1,039톤의 온실가스 저감 성과를 냈다.

- 우선 오는 9월부터는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조례’ 개정(’24.3.15)에 따라 서울시가 주최하는 참여 예상인원 1천 명 이상 행사에서는 일회용품 사용이 금지되고, 행사계획 수립 시 폐기물 감량계획을 의무적으로 포함해야 한다. 이를 통해 실질적인 폐기물량을 감축하고 친환경 축제 문화를 뿌리내린다는 계획이다.
- 시는 제도 시행에 앞서 행사 폐기물 감량 가이드라인을 준비하여 친환경 축제의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장례식장 스포츠경기장 등 다회용기 우선 도입, 하반기 대형 민간장례식장까지 확대>

- 또 다량의 일회용품 배출로 몸살을 앓는 스포츠경기장, 장례식장 등에 대해서도 다회용기를 우선 도입한다.
- 지난해 7월 서울의료원의 ‘1회용품 없는 장례식장’ 지정에 이어 올해 4월 잠실야구장 입점 업체 38곳이 다회용기에 식음료를 담아 판매하기 시작했다. 상반기 중 시립동부병원이 추가로 다회용기를 사용하고 하반기에는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에도 다회용기가 도입될 예정이다. 시는 이를 통해 이들 시설의 연간 폐기물 발생량을 약 80%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 조문객은 다회용기에 음식을 받고 사용된 다회용기는 전문 업체에서 세척 후 재사용하는 방식이다.

- 하반기부터는 ‘개인컵 사용 포인트제’도 본격 시행한다. 포인트제 참여 매장에서 개인컵으로 음료를 주문하고 서울페이로 결제하면 건당 300원의 서울페이 포인트가 적립된다. 매일 개인컵을 이용 시 한달에 최대 9,000원의 포인트를 쌓을 수 있고, 포인트는 현금처럼 사용 가능하다.

- 지난해 시범사업 시엔 300원을 할인해 주는 방식이었으나 소상공인이 대부분인 카페 운영자의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을 덜고, 시민들도 평균 5% 할인 구매 가능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결제할 수 있는 상생 방안을 택했다.

<소상공인 종이 등 대체 빨대 구매시 점포당 최대 10만개·1개당 3원 지원… 8000만개 규모>

- 이외에도 시는 지난 13일부터 서울 시내 소규모 카페들이 종이 등 대체 빨대를 구입하면 1개당 약 3원씩의 구매비를 지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소상공인과 영세업체가 대부분인 대체 빨대 생산업체도 함께 지원하겠다는 목적이다. 올해 총지원개수인 8,000만개 종이 빨대 사용 시 플라스틱 약 80톤(빨대 1개 약 1g 가정) 감축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 대체 빨대는 협동조합 온라인 판매처(<http://allcafeowner.com>)에서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 매장별 최대 10만개까지 지원한다.
- 서울시는 지난 '22년,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비대면 구매와 배달이 증가하면서 급속도로 늘어난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제로웨이스트 서울'을 선언했다. 이후 커피전문점, 배달·포장음식점 등 대상 다회용기 사용을 시작으로 지난해에는 장례식장, 행사·축제, 잠실야구장 등 다중이용장소로 범위를 확대해 플라스틱 줄이기에 적극 나서고 있다.
- 이와 함께 시민 참여를 이끌기 위해 개인컵 사용 시 추가 할인을 지원하거나, 사용가치가 있는 물품 재사용과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한 플리마켓 개최, 자원순환 및 재활용 체험 등 다양한 시민 참여 행사도 펼치고 있다.

□ 시정 전반에 대해 플라스틱 감축 노력을 펼친 결과 지난해 다회용기(컵, 용기) 사용이 전년 222만개 대비 7.7배 증가한 1,724만개로 늘었고 4개 배달앱(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땡겨요) 다회용기 주문도 10만 2천건으로 전년 대비 3.5배 가량 늘었다고 덧붙였다.

- 서울의료원 장례식장 9개 빈소에서 20만명의 조문객을 다회용기로 맞아 월평균 약 15톤의 폐기물을 줄였고 서울재즈페스티벌, 서울파크뮤직페스티벌 등 총 69개 축제장에서도 87만개의 다회용기를 사용했다. 매장 내 다회용기를 도입한 잠실야구장도 지난 2년간 1회용기 약 23만개를 줄였다.
- 또 4개 배달앱 다회용기 주문 가능 지역도 '22년 5개구에서 '23년 10개구, '24년 15개구로 확대했다.

▶ ('23)강남서초·관악광진·서대문·동작·송파·성동·마포·용산 ('24)영등포·강서·중구·종로·양천(추가)

(단위: 만개, '24년 1분기 기준)

| 항 목 | | 소 계 | 2022년 | 2023년 | 2024년 3월 |
|-----------|-----------|---------|-------|---------|----------|
| 총 계(컵+용기) | | 2,185.5 | 222.5 | 1,724.2 | 238.8 |
| 1회용 컵 | 소 계 | 1,671.1 | 156 | 1,378.9 | 136.2 |
| | 개인 컵 | 1,005.4 | - | 1,005.4 | - |
| | 다회용 컵 | 665.7 | 156 | 373.5 | 136.2 |
| 1회용 포장용기 | 소 계 | 514.4 | 66.5 | 345.3 | 102.6 |
| | 배달앱 | 37.9 | 7.1 | 24.4 | 6.4 |
| | 행사·축제 | 100 | 1.1 | 87.2 | 11.7 |
| | 장례식장 | 210.4 | - | 142.7 | 67.7 |
| | 잠실야구장 | 22.8 | 19 | 3.8 | - |
| | 배달+돌봄 도시락 | 143.2 | 39.3 | 87.1 | 16.8 |

※ 1회용 컵은 개당 14g, 1회용 포장용기는 개당 28g으로 환산하여 감축량 산출

※ 플라스틱류 소각공정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시 CO₂ 배출계수 2.7480 tCO₂/t 적용

□ 권민 서울시 자원회수시설추진단장은 “플라스틱 폐기물은 인류의 생존과 환경을 위협하고 기후 위기까지 초래하는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서울시는 2022년 제로웨이스트 서울 선언 후 시민의 참여가 보상으로 이어지는 ‘쓰테크(쓰레기+재테크)’ 등 일상과 밀접한 사업부터 시정 전반까지 일회용품 줄이기를 적용해 실질적인 플라스틱 폐기물 감량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개인컵 사용의 날 캠페인



개인컵 사용 할인제 참여 카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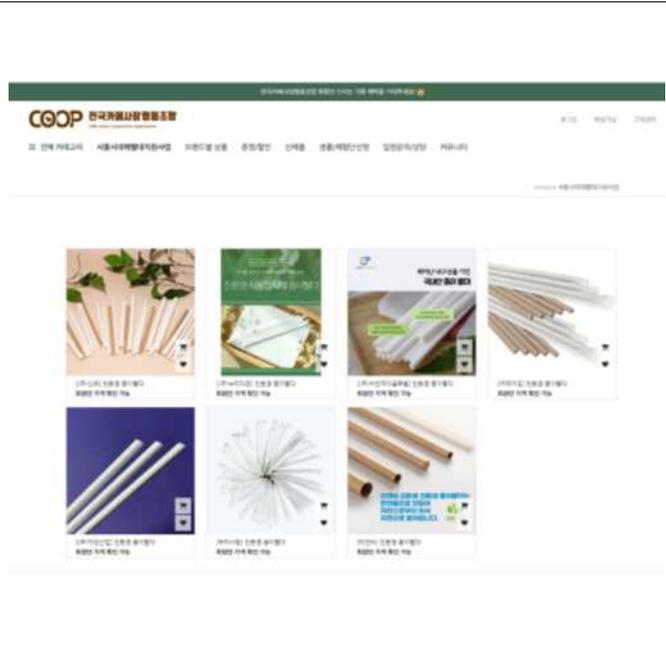
1회용품 없는 장례식장(서울의료원)



축제용 다회용기



다회용 배달서비스 이용 사진



플라스틱 대체 빨대(온라인 판매)